

중소기업의 기술역량과 학습역량이 국제화 성과에 미치는 영향: 혁신성과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양영수
연세대학교 국제처 객원교수

이재은
순천대학교 무역학전공 부교수

The Effects of Technological and Learning Capability of SMEs on the International Performance: Focusing on the Mediating Effect of Innovative Performance

Young-Soo Yang^a, Jae-Eun Lee^b

^aInternational Affairs Office, Yonsei University, South Korea

^bDivision of Business and Commerce, Suncheon National University, South Korea

Received 25 March 2020, Revised 20 April 2020, Accepted 25 April 2020

Abstract

While many previous studies have emphasized that technological and learning capabilities have an important impact on internationalization, however, there have been few attempts to directly identify the mediating role of innovative performance in the relationship between them. Therefore, we tested the relationships among two organizational capabilities such as technological capability and learning capability, innovative performance and internationalization. Specifically, we explored the impact of two organizational capabilities on innovative performance and the mediating role of innovative performance on internationalization. We tested hypotheses based on 206 survey data of Gwangju and Jeonnam provinces' small and medium-sized enterprises (SMEs). The empirical results showed that both technological capability and learning capability had a significantly positive (+) effect on SMEs' innovation performance, and both technological capability and learning capability had a significantly positive (+) effect on internationalization performance. In addition, it was confirmed that the innovation performance is not only related to the relationship between technological capability and internationalization performance but also acts as a partial mediation role in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learning capability and internationalization performance. Based on the results of this study, theoretical and practical implications were provided, and the limitations of this study and future research directions were also discussed.

Keywords: Innovative Performance, International Performance, Learning Capability, Technological Capability, SMEs

JEL Classifications: F10, F13

^a First Author, E-mail: seoukore@yonsei.ac.kr

^b Corresponding Author, E-mail: sky2u@scnu.ac.kr

I. 서론

기업의 국제화는 기업의 성장과 생존에 있어서 중요한 전략적 의사결정 중 하나로 간주되어 왔으며(Vermeulen and Barkema, 2002), 특히 대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중소기업에게는 더욱 중요한 의사결정으로 여겨져 왔다(Lu and Beamish, 2006). 한국기업들은 작은 내수 시장의 크기로 인해 성장의 한계라는 근원적인 문제점을 가지고 있으며, 세계 시장은 단일시장으로 통합되면서 글로벌 경쟁이 점점 더 치열해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한국 중소기업들은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기업 성장과 생존을 위해 적극적으로 국제화 및 혁신을 추구해야하는 상황에 놓여있다. 그러나 중소기업들은 대기업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정보, 자원과 인력 그리고 기술의 부족을 겪기 때문에, 국제화 전략을 추구하기가 쉽지 않다(Cassiman and Golovko, 2011). 또한, 기업의 국제화는 서로 다른 제도적 문화적 환경에 의해 발생하는 외국인 비용(liabilities of foreignness)이 존재하기 때문에 국내기업들이 해외 시장에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서 발생하는 추가적인 비용을 지불해야하며(Tsao and Chen, 2012), 국제 사업을 영위함에 따르는 여러 위험들도 극복해야 한다(Cassiman and Golovko, 2011).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중소기업들이 해외 시장으로 진출을 시도하는 이유는 국제화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장점들 때문이다. 국제화는 중소기업의 판매 시장 다변화 및 수출을 통한 대량 판매 및 생산으로 인해 발생하는 규모의 경제 혹은 범위의 경제를 달성할 수 있게 하고, 노동생산성이나 관리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Lu and Beamish, 2006; Lee Jae-Eun, Kang Ji-Won, Choi Seo-Hyung and Choe Soon-Kyoo, 2017; Tsao and Chen, 2012). 또한 국제시장으로 확장함으로써 중소기업들은 시장에서의 영향력을 높일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수익을 다양화할 수 있는 이점도 있다(Lu and Beamish, 2006). 또한, 국제화는 중소기업들이 국제시장에서의 경험을 통해 새로운 역량을 확보할 수 있는 기회도 제공한다(Sapienza, Autio, George and Zahra, 2006).

중소기업의 경우, 차별화된 기술 역량은 핵심역량으로 간주되며 국제화를 위한 핵심적인 요인이 될 수 있다(Oivatt and McDougall, 2005). 또한, 학습역량은 중소기업 경쟁력의 중요한 요소로 간주된다(Ar and Baki, 2011). 중소기업 경우 대기업보다 조직의 학습역량이 혁신이나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이 더 크다는 연구결과도 존재한다(Jiménez-Jiménez and Sanz-Valle, 2011). 혁신이 기업의 국제화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 중 하나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Cassiman and Golovko, 2011), 중소기업의 기술역량과 혁신성과, 국제화 성과 간의 관계에 있어서 혁신성과가 매개변수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예상할 수 있다.

그동안 기업의 학습역량, 기술역량, 혁신 그리고 국제화의 관계에 관한 연구들은 많이 진행되어 왔으나(Gomes and Wojahn, 2017),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이러한 관계에 대한 실증분석을 시도한 연구들은 그리 많지 않은 실정이다. 아울러, 중소기업의 기술역량과 학습역량 그리고 국제화 성과로 연결되는 연계 관계에 대한 이해도는 매우 제한적이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선행연구에서는 다루지 않았던 중소기업의 기술역량과 학습역량 그리고 국제화 성과의 매개효과를 분석하는 것이며,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중소기업들의 기술역량과 학습역량이 국제화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아울러 혁신성과가 이들 요인과 국제화 성과 간의 관계에 있어서 매개효과를 가지는지를 실증적으로 검증할 것이다. 특히, 혁신성과의 매개효과를 분석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 혁신성과가 국제화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결정요인이라는 선행연구 결과들이 존재하고(Cassiman and Golovko, 2011; Sui and Baum, 2014; Jung Bung-Chul and Choi Soon-Gwon, 2019), 기술역량이나 학습역량과 같은 조직의 역량은 혁신의 선행 요인으로만 기능할 뿐만 아니라 혁신이 이러한 역량과 국제화 간의 관계를 매개하는지 여부를 규명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II. 관련문헌 검토

1. 중소기업의 국제화

다수의 연구자들이 중소기업의 국제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규명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자원기반관점(resource based view, RVB)에서는 기업을 지속적인 경쟁우위를 제공하는 특유한 자원의 묶음(idiosyncratic bundle of resource)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기업의 자원 축적 및 결합 역량, 자원의 이질성(heterogeneity)이 국제화에 어떤 차이를 가져오는지 설명하는데 집중한다(Yi, Wang and Kafouros, 2013). 특히, 중소기업의 경우 가치 있고 희소한 기업 내부역량의 보유가 매우 중요하다(Freeman, Carroll and Hannan, 1983).

지금까지의 중소기업의 국제화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요인들로는 경영자들의 특성, 기업특성, 환경적 특성 등이 주요 요인들로 밝혀지고 있다. 중소기업의 경우 창업자나 최고경영자가 기업의 전략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Oviatt and McDougall, 2005) 다수의 선행연구들이 최고경영자들의 경험, 역량, 태도와 같은 경영자들의 특성이 국제화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또한, 국내외의 시장 환경 및 경쟁 상황과 같은 환경적 특성, 그리고 마케팅 역량이나 기술역량과 같은 기업특성 등을 중심으로 국제화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왔다(Lee Hee-Yong, Yoon Jung-Hyun and Yeo Taek-Dong, 2011; Park Kyoung-Su and Shin Jin-Kyo, 2017; Lim Jae-Oh and Yoon Heon-Deok, 2013). 이외에도 기업 외부에서 구축된 외부 기업들과의 관계를 유지, 활용하는 능력을 의미하는 네트워크 역량은 기업의 국제화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변수 중 하나이며(Park Eun-Kyoung and Kang Tae-Koo, 2014), 특히 중소기업의 네트워크는 글로벌 시장에 관련된 지식이나 정보를 획득하는데 도움을 줌으로써 국제화 성과와도 정(+)의 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Park Kyoung-Su and Shin Jin-Kyo, 2017; Park Eun-Kyoung and Kang Tae-Koo, 2014).

중소기업의 국제화와 관련된 국내의 선행연

구들을 살펴보면, Lee Hee-Yong, Yoon Jung-Hyun and Yeo Taek-Dong(2011)은 대구경북지역의 317개 수출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중소기업의 국제화 결정요인이 국제화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으며, 실증분석 결과 연구개발능력, 글로벌지향성, 해외시장환경, 기술역량 및 기술모방성 등이 국제화 성과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밝혀냈다. Park Kyoung-Su and Shin Jin-Kyo(2017)는 233개의 혁신형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국제화 결정요인과 국제화 성과 간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 혁신형 중소기업의 기업가 정신, 기술역량, 그리고 국내시장 환경이 국제화와 정(+)의 관계를 가지는 것을 밝혀냈다. Park Eun-Kyoung and Kang Tae-Koo(2014)는 설립 후 3년 내에 신속한 국제화를 실시한 한국 중소기업들을 대상으로 기업가 지향성과 네트워크 역량이 국제화 성과에 미치는 영향과 동태적 역량의 매개효과도 분석하였다. 이들의 연구에서는 기업가 지향성, 네트워크 역량이 높을수록 국제화 성과는 높아진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또한, 해외에 진출한 한국 282개의 중소제조기업을 대상으로 기술혁신역량이 국제화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Lim Jae-Oh and Yoon Heon-Deok(2013)의 연구에 따르면 기술혁신역량은 국제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2. 기술역량과 학습역량

자원기반관점에서는 경쟁기업이 모방하기 어려운 특성을 가진 기업의 기술역량이 경쟁우위 창출에 있어서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한다(Barney, 1996). 자원기반 및 지식기반 관점에서 보면, 기술역량(technological capability)은 기술 지식을 흡수하고 활용하거나 새로운 지식을 창출할 수 있는 역량(Kang, Baek and Lee, 2017) 혹은 신제품이나 새로운 프로세스를 개발하거나 시설을 효과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능력으로 정의될 수 있다(Tzokas, Kim, Akbar and Al-Dajani, 2015). 한편, 기업의 학습역량은 글로벌 시장에서 성공적으로 경쟁할 수 있는 기초적인 요소 중의 하나이다(Prahalad and

Hamel, 1990). 기업의 학습은 새로운 지식의 개발과 관련되어 있으며, 이는 혁신할 수 있는 기업의 능력과 성과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다(Calantone, Cavusgil and Zhao, 2002). 학습 전략을 수행하고 있는 기업들은 혁신 프로세스에서 경쟁우위를 확보할 수 있다(Ar and Baki, 2011). 따라서 조직 학습(organizational learning)은 자원기반관점에서 보면 기업 간의 이질성(heterogeneity)의 원천이자 경쟁우위(competitive advantage)의 원천이다(Grant, 1996; Ar and Baki, 2011). 조직학습은 조직 구성원들의 공통된 경험과 새로운 지식 개발에 대한 이해를 이용하여 조직의 개발 능력과 행동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프로세스이다(Kalmuk and Acar, 2015). 또한, 조직학습이 조직이 지식을 프로세스 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본다면, 학습역량(learning capability)이라는 것은 기업이 지식을 창출, 획득, 이전 및 통합하고, 새롭게 인지된 상황을 반영하여 자신들의 행동을 수정함으로써 성과를 향상시킬 수 있는 능력이라고 정의 될 수 있다(Jerez-Gómez, Céspedes-Lorente, and Valle-Cabrera, 2005). 즉, 기업의 학습역량은 학습 프로세스를 촉진하거나 학습할 수 있도록 하는 조직 및 관리 특성 또는 요소로도 볼 수 있다(Alegre and Chiva, 2013). 다수의 선행연구들이 중소기업의 학습역량과 제품 혁신과의 정(+)의 연관 관계를 보고하고 있다(Ar and Baki, 2011; Alegre and Chiva, 2013; Gomes and Wojahn, 2017). Alegre and Chiva(2013)는 이탈리아와 스페인의 세라믹 타일을 제조하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실증 분석한 결과 학습역량과 혁신 성과는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규명하였다. 더 나아가 학습역량은 혁신성과를 향상시킴으로써 기업의 성과를 향상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에 관한 연구들 중에서 터키의 과학기술단지 에 위치하고 있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분석한 Ar and Baki (2011)의 연구에서는 중소기업의 학습역량이 혁신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를 제시하였다. 이와 유사하게 브라질의 섬유제조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분석한 Gomes and Wojahn (2017)의 연구에서도 중소기업의 학습역량이 혁신 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종합해보면 혁신은 학습역량과 관련되어 있고, 혁신에 선행하는 요소 중 하나로 설명된다(Gomes and Wojahn, 2017). 따라서 높은 수준의 혁신을 위해서는 효과적인 학습역량이 요구된다고 볼 수 있다.

3. 혁신성과

혁신은 내부 및 외부 환경의 변화에 대응하거나 환경의 영향을 덜 받기 위한 예방 조치로써 채택된다(Gomes and Wojahn, 2017). 기업은 불확실성이 높은 환경에서 살아남기 위해 그리고 생존을 위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반드시 혁신해야 한다(Calantone et al, 2002). 특히 한국의 중소기업의 경우, 미래의 잠재적 성장과 생존과 같은 이유 외에도 국내 수출주도형 경제구조 및 내수 시장 크기의 한계가 존재하기 때문에 혁신과 국제화를 추구해야 할 필요성이 높다. 다수의 선행연구들의 결과에 의하면 기업의 혁신성은 기업의 성장, 경영성과, 그리고 국제화 등과 같은 기업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으로 간주되고 있다(Calantone et al., 2002; Cassiman and Golovko, 2011; Sui and Baum, 2014). 중소기업들은 종종 혁신을 통해 경쟁우위를 확보함으로써 유리한 경쟁적 포지션을 선점한다(Lee Hee-Yong, Yoon Jung-Hyun and Yeo Taek-Dong, 2011). 이와 관련한 선행연구들은 중소기업의 혁신성과 국제화 간의 정(+)의 관계를 보고하고 있다. 예컨대, Cassiman and Golovko (2011)은 스페인의 중소기업들을 대상으로 제품 혁신이 수출을 통한 국제화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성공적인 제품 혁신은 중소기업들이 수출 시장으로 진출하는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Sui and Baum(2014)은 1997년부터 2005년까지의 기간 동안 새로 설립된 캐나다의 1959개 중소기업들을 대상으로 기업의 슬랙 자원과 혁신 자원이 해외 수출시장에서의 생존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본글로벌과 같은 중소기업의 경우 높은 수준의 혁신이 국제시장에서의 생존에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국내의 연구에서도 Jung Bung-Chul and Choi Soon-

Gwon(2019)은 국내 중소기업 276개의 데이터를 바탕으로 제품혁신과 공정혁신, 마케팅 혁신, 조직혁신 역량이 재무성과와 수출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중소기업의 신제품 혁신 역량과 조직혁신 역량이 수출 성과 및 재무성과와 같은 경영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규명하였다. 선행연구들을 종합해 보면 중소기업들의 제품 및 조직 혁신성과를 기반으로 신제품 혁신 활동을 계속해서 수행하는 경우 글로벌 경쟁우위를 창출함으로써 수출과 같은 국제화 성과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중소기업의 혁신성과와 국제화 성과는 정(+)¹⁾의 관계를 가질 것이라고 보고 혁신성과를 국제화 성과의 영향요인으로 상정하였다.

III. 가설설정

1. 기술역량과 혁신성과

혁신은 새로운 아이디어, 프로세스, 제품 또는 서비스의 창출 및 실행을 의미하거나(Calantone et al., 2002), 새로운 아이디어의 성공적인 실행이라고 정의될 수 있다(Fernández-Mesa and Alegre, 2015). 혁신성과는 기업의 경영성과나 경쟁적 환경에서의 기업생존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으로 간주된다(Sutanto, 2017). 효과적인 조직 혁신은 환경 변화에 직면할 수 있는 경쟁우위를 구축하거나 유지할 수 있게 하는 핵심요소이며(Sutanto, 2017), 혁신을 할 수 있는 조직의 역량은 경쟁우위를 창출할 수 있는 주요 요소 중 하나이기 때문이다(Fernández-Mesa and Alegre, 2015). 특히, 중소기업의 혁신성은 경쟁적 우위를 제공하기 때문에 경쟁자들에 비해 우수한 성과를 달성할 수 있게 만드는 중요한 요인이다(Sok, O'Cass and Sok, 2013).

기업의 기술역량은 기업특유우위와 경쟁우위 창출의 원천이며, 혁신을 창출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자원 중의 하나이다(Ar and Baki, 2011). 기술역량이 높은 기업들은 높은 수준의

흡수능력(absorptive capacity)을 가지고 있으며 혁신을 성공적으로 이끌어낼 가능성이 높다(Cohen and Levinthal, 1990). 또한, 기업이 기술역량을 가지고 있는 경우 새로운 기술개발과 트렌드를 탐색할 수 있는 능력이 향상되어 새로운 기회를 발견하고 기술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속도가 증가하기 때문에 기업의 기술역량이 높을수록 탐색적 혁신을 시도할 가능성이 높아진다(Tzokas et al., 2015).

기술역량은 연구개발투자의 불확실성을 낮춰주고 연구개발투자의 범위를 넓혀주기 때문에 새로운 기술에 효율적으로 투자하거나, 새로운 기술을 흡수하는데 도움을 준다(Kang et al., 2017). 중소기업들이 기술역량을 축적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지식의 축적은 제품의 혁신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침과 동시에 새로운 기술을 평가하거나 사용 및 구현시키는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Tzokas et al., 2015). 중소기업들 중에서 우수한 기술역량을 가지고 있기란 쉽지 않으며, 그렇기 때문에 혁신에 전념하고 최첨단 기술을 보유하는 경우 혁신에 그 기술을 사용할 가능성이 높다(Calantone et al., 2002).

이상의 논의에 따라 다음의 가설을 도출하였다.

- H1. 중소기업의 기술역량은 중소기업의 혁신성과에 정(+)²⁾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2. 학습역량과 혁신성과

학습 프로세스는 지식의 습득, 전파 및 사용으로 구성되기 때문에 새로운 아이디어를 창출하는데 매우 유용한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Alegre and Chiva, 2013). 실제로 학습역량은 혁신의 기초 요소 중 하나이다(Kalmuk and Acar, 2015). 따라서 어떠한 정의에 기반 하더라도 학습할 수 있는 기업의 학습역량은 혁신가능성의 핵심 지표이며, 제품 혁신성과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Fernandez-Mesa et al., 2013). 왜냐하면, 학습역량이 혁신을 뒷받침할 때 새로운 아이디어를 창출하고 창의성을 지원하기 때문에 혁신에

있어서 학습역량은 중요한 기초 요소로 작용하기 때문이다(Kalmuk and Acar, 2015).

기업이 학습역량을 가지고 있는 경우, 내부적으로 확립된 학습메커니즘을 통해서 정기적으로 현재 상태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고, 지속적인 개선을 추구함으로써 보다 유연하고 적응 가능한 방식으로 일을 수행할 가능성이 높다(Altinay, Madanoglu, De Vita, Arasli, and Ekinci, 2016). 따라서 중소기업이 학습역량을 가지고 있다면, 제품이나 서비스 혹은 공정에 대한 지속적인 개선을 추구하면서 새로운 아이디어나 적용에 있어서 유연한 태도로 실행할 가능성이 높다. 혁신이 새로운 아이디어의 성공적인 실행이라는 정의에 기반하면(Fernández-Mesa and Alegre, 2015), 학습역량은 중소기업의 혁신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다.

학습은 주로 기업과 기업 환경과의 상호작용 및 관찰을 통해 이루어지고, 혁신과 관련하여 고객들의 니즈에 관한 불확실성, 기술의 급작스런 변화 및 경쟁에 관한 불확실성은 환경과 관련된 중요한 요소들이다(Calantone et al., 2002). 기업의 학습역량은 시장 개발 및 동향을 파악하는데 유리하게 이용될 수 있는 것으로 간주되고 있는데(Kalmuk and Acar, 2015), 실제로 학습 능력이 더 큰 기업은 변화하는 소비자의 요구를 식별해낼 수 있으며(Altinay et al., 2016) 경쟁업체보다 더 쉽게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조직의 성과가 향상된다는 연구결과도 보고되고 있다(Altinay et al., 2016). 즉, 소비자들의 니즈나 경쟁자의 행동에 대한 이해는 조직으로 하여금 혁신의 혜택을 누릴 수 있게 한다(Gomes and Wojahn, 2017).

또한, 학습하는 조직은 새로운 환경이나 시장 동향과 같은 새로운 상황에 지속적으로 적응할 수 있으며, 새로운 환경의 요구에 따라 스스로를 재개발 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을 가능성이 높다(Ar and Baki, 2011). 혁신이 새로운 아이디어, 프로세스, 제품 또는 서비스의 창출 및 실행을 의미한다는 것을 감안하면(Calantone et al., 2002), 혁신을 가능하게 할 수 있는 환경에 대한 센싱 능력은 결국 기업의 학습역량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논의에 비춰볼 때, 중소기업의 학습역량이 높을수록 시장수요에 대한 높은 이해도와 고객의 니즈를 이해하고 예측할 수 있는 지식과 능력을 갖추고 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Calantone et al., 2002) 혁신성과가 높아질 가능성이 높다.

이상의 논의에 따라 다음의 가설을 도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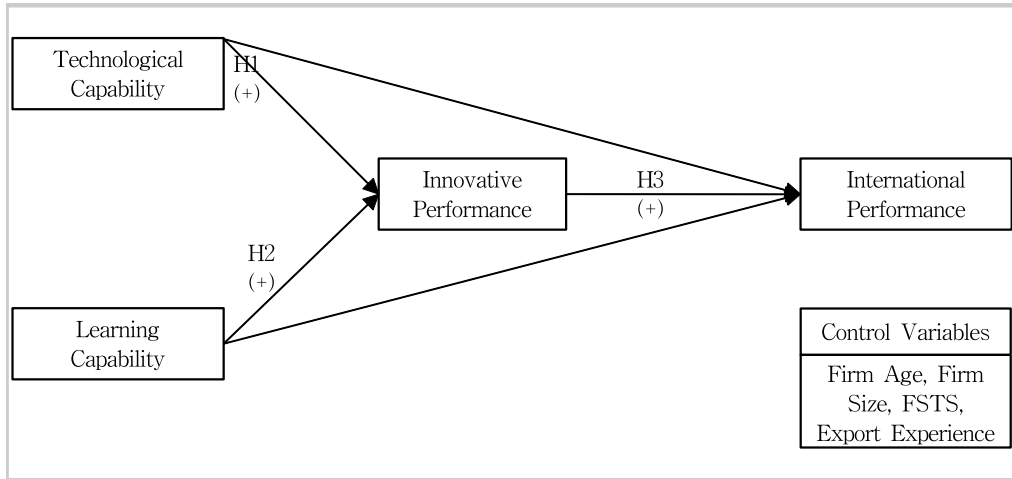
H2. 중소기업의 학습역량은 중소기업의 혁신성과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3. 혁신성과와 국제화성과

본 연구에서는 중소기업의 혁신성이 높은 경우 해외 시장에서의 고객의 요구에 부합하는 신제품이나 신속한 시장 변화에 요구되는 제품 출시에 유리할 수 있기 때문에 국제화 성과와 긍정적인 관계가 있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선행연구에 의하면, 신규시장 진출을 위한 중소기업의 제품 혁신은 품질 개선에 기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해외 시장에 대한 제품 판매 증가에도 기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Golovko and Valentini, 2011). 또한, 기업의 혁신성은 기업이 시장에서 성공하기 위해 요구되는 고객의 니즈와 변화된 니즈를 충족시키기 위해 우수한 제품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기업에게 도움을 준다(Sok, O'Cass and Sok, 2013). 이러한 측면에서 혁신성과가 시장에서의 파워를 부여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수출을 촉진시킨다는 연구결과도 보고되고 있다(Fernández-Mesa and Alegre, 2015; Quintas, Vazquez, Garcia, and Caballero, 2009).

혁신적 기업들은 환경적 압력에 빠르게 대응할 수 있기 때문에 우수한 성과를 달성할 수 있다는 선행연구들의 주장에 비춰볼 때(Jiménez-Jiménez and Sanz-Valle, 2011), 혁신성과가 높은 중소기업은 국제화에 요구되는 환경적 압력과 변화에 빠르게 대응할 수 있으므로 국제화 성과와 긍정적인 관계가 있을 것이라는 것을 예상할 수 있다. 선행연구에서도 중소기업이 성과지향적으로 혁신활동을 추진하는 경우 수출성과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를 보고하였다(Kim Hag-Min and Zhang

Fig. 1. Research Model



Jin, 2012). 또한, 중소기업들은 혁신성과에 기반 된 경쟁우위를 활용하기 위해 규모의 경제나 범위의 경제를 달성을 목표로 해외진출에 적극적일 수 있으며(박경수·신진교, 2017), 이를 위해 자신들의 기술역량과 결합시킴으로써 우수한 국제화 성과를 달성할 수 있을 가능성이 높다. 실제로 기업의 혁신성은 기업의 제품, 프로세스, 생산 등에 관련된 문제해결 능력을 개선시켜주기 때문에 기업에게 특유의 경쟁우위를 제공함으로써 국제시장에서 성공적으로 운영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Yi et al., 2013). 이러한 논의에 따라 아래의 가설을 도출하였다.

H3. 중소기업의 혁신성과는 중소기업의 국제화 성과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상의 논의들을 도식화한 모형은 <Fig. 1>에서 제시하고 있다.

IV.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

본 연구에서는 중소기업의 기술역량과 학습역량이 국제화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혁신성과

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실증분석한다. 광주 및 전남에 위치한 FTA활용지원센터를 통해 '2016년 상담업체리스트'를 확보하여 총 761개의 중소기업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하였다. 총 218부의 설문지를 회수하였으나 이들 중 분석에서 오류를 발생시킬 수 있는 불완전한 설문지 12부를 제외하고 최종적으로 206부의 설문지를 최종분석에 활용하였다. 가설검증을 위해 본 연구에서 주로 사용한 통계기법은 다중회귀분석이며, 이를 포함한 일련의 통계분석들은 SPSS 22.0 버전을 활용하였다.

2. 변수측정

1) 종속변수

본 연구의 종속변수는 국제화 성과이다. 국제화 성과는 Morgan, Katsikeas and Vorhies(2012)의 연구를 참고하여 우리 회사는 i) 해외 주력 시장에서 제품 성공만족도가 높음, ii) 해외 주력 시장에서 경쟁사보다 기업평판이 좋음, iii) 해외 주력 시장에서 신규 고객수가 증가하였음, iv) 해외 주력 시장에서 기존 고객들의 재구매율이 높음 등 4개 문항에 동의하는 정도를 리커트식 7점 척도로 측정하였다(1=전혀 그렇지 않다, 7=매우 그렇다).

Table 1. Summary of Measurement

Variables	Measurement	Sources
ITP	i) Our firm has high level of satisfaction with product success in overseas markets, ii) Our firm has a better reputation than competitors in overseas markets, iii) In the overseas market, the number of new customers of our firm has increased, iv) Existing customers of our firm in overseas markets have a high repurchase rate for our products.	Morgan et. al.(2012)
TC	i) Our firm has a strong reputation for technological excellence within our industry, ii) Our firm possesses many core technologies necessary for the production of products and services, iii) Our firm has many technologies that competitors cannot easily imitate, iv) Our firm has more innovative technologies than our competitors, v) Our firm is actively using innovative technologies to launch products that reflect customer needs, vi) Our firm recognizes technology assets as an important source of revenue generation, vii) Our firm has advanced personnel for research and development.	Knight and Cavusgil (2004)
LC	i) Our firm recognizes that learning is important to the survival of our firm, ii) Our firm believes that learning is important to the development of our organization, iii) Our firm emphasizes the need to constantly search for information to our employees, iv) The employees of our firm constantly strive to learn new things, v) Our firm believes that learning of employee is an investment, not an expenditure.	Sinkula et. al.(1997)
IP	i) Our firm captures innovative business opportunities very well in overseas markets, ii) Our firm is very good at exploring new ideas to solve problems, iii) Our firm regards innovation as an important corporate philosophy, iv) Our firm quickly applies useful innovations.	Miller(1983), De Luca and Atuahene-Gima(2007)
FA	Number of Years from the Year of Establishment to 2017.	Yang et. al.(2008)
FS	Log Value of the Total Number of Employees in the Firm	Kale et. al.(2002)
FSTS	Foreign Sales as a Percentage of Total Sales	Hennart et al.(2019)
EE	Number of Years from the Year when Export was Started to 2017.	Lee Jae-Eun et al.(2017)

Notes: ITP=International Performance, TC=Technological Capability, LC=Learning Capability, IP=Innovative Performance, FA=Firm Age, FS=Firm Size, FSTS=Foreign Sales as a Percentage of Total Sales, EE=Export Experience.

2) 독립변수

본 연구의 독립변수는 기술역량과 학습역량이다. 먼저 기술역량은 Knight and Cavusgil (2004)의 연구를 참고하여 우리 회사가 속한 산업에서 i) 우리 회사는 산업 내에서 기술력 위치에 대한 인지도가 뛰어난, ii) 우리 회사는 제품 및 서비스 생산에 필요한 핵심적인 원천기

술을 많이 보유하고 있음, iii) 우리 회사가 보유한 기술은 경쟁사가 쉽게 모방하기 어려움, iv) 우리 회사는 경쟁사와 비교하여 혁신적인 기술을 보유하고 있음, v) 우리 회사는 고객의 욕구를 반영한 제품을 출시하기 위해 혁신적인 기술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음, vi) 우리 회사는 기술 자산을 수익 창출의 중요한 원천으로

인식함, vii) 우리 회사는 연구개발을 위한 고급 인력을 보유하고 있음 등 총 7개 문항에 동의하는 정도를 리커트식 7점 척도로 측정하였다(1=전혀 그렇지 않다, 7=매우 그렇다). 다음으로 학습역량은 Sinkula et. al.(1997)의 연구를 참고하여 우리 회사는 i) 기업의 생존에 있어 학습이 중요함, ii) 조직의 발전을 위해 학습을 중요하게 생각함, iii) 직원들에게 지속적으로 정보 습득의 필요성을 강조함, iv) 직원들이 새로운 것을 배우기 위해 노력함, v) 직원들의 학습은 지출이 아닌 투자라고 생각함 등 5개 문항에 동의하는 정도를 리커트식 7점 척도로 측정하였다(1=전혀 그렇지 않다, 7=매우 그렇다).

3) 매개변수

본 연구에서는 기술 및 학습역량과 국제화성과 간 관계에서 혁신성과를 매개변수로 고려하고 있다. 혁신성과는 Miller(1983) 및 De Luca and Atuahene-Gima(2007)의 연구를 참고하여 우리 회사는 i) 해외시장에서 혁신적인 사업 기회를 잘 포착함, ii) 문제해결을 위한 새로운 아이디어를 잘 탐색함, iii) 혁신을 기업의 이념으로 여김, iv) 유용한 혁신사례들을 신속하게 기업에 적용함 등 4개 문항에 동의하는 정도를 리커트식 7점 척도로 측정하였다(1=전혀 그렇지 않다, 7=매우 그렇다).

4) 통제변수

본 연구에서는 앞서 언급한 독립변수 및 매개변수 외에 기업연령, 기업규모, 해외매출비중, 수출경험 등과 같은 변수들을 통제변수로 고려하였다. 먼저 기업연령은 기업설립 후 2017년까지의 경과년수로 측정하였으며(Yang et al., 2008), 기업규모는 총 종업원수의 로그값으로 측정하였다(Kale et al., 2002). 다음으로 해외매출비중은 기업의 총 매출액 중 해외매출액의 비중으로 측정하였으며(Hennart et al., 2019), 마지막으로 수출경험은 수출을 처음 시작한 후 2017년까지의 경과년수로 측정하였다(Lee Jae-Eun et al., 2017).

(Table 1)은 지금까지 살펴본 변수들의 측정방법을 요약하여 제시하고 있다.

V. 가설 검증 결과

가설검증에 앞서 타당성과 신뢰성 분석을 먼저 수행하였으며, 그 결과는 다음 (Table 2)에 제시되어 있다. 이 표에서 볼 수 있듯이 KMO의 표본적합성 검사결과 KMO 측도값이 0.906으로 나타났으며 Bartlett의 구형성검증결과값이 2946.634($p=0.000$)으로 나타나 본 연구에서 활용한 측정문항들이 요인분석을 실시하는데 적합함을 확인하였다. 탐색적 요인분석결과 각 요인들의 요인적재값들이 모두 정확하게 구분되어 있음을 확인하였기 때문에 변수들의 타당성에는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일반적으로 선행연구들은 공통성(communality)이 0.4이하인 측정문항의 경우 요인분석에서 제외할 것을 제안하는데, (Table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각 측정문항들의 공통성은 모두 0.5 이상인 것으로 나타나 모두 요인분석에 포함되어 분석을 진행하였다. 다음으로 신뢰성 분석을 위해 Cronbach's alpha값들을 확인한 결과 각 변수들의 alpha값이 모두 0.8이상으로 나타나 신뢰성에도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Table 3)은 본 연구의 실증분석에서 이용된 변수들의 기초통계량 및 상관관계 분석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이 표에서 제시하는 바와 같이 각 변수들의 상관관계는 대체적으로 만족스러운 수준이었다. 하지만 다중공선성의 가능성을 확인하기 위해 추가분석을 실시하였다. 선행연구들은 일반적으로 VIF값이 10이하이고 CI값이 30이하이면 다중공선성의 가능성을 우려하지 않다고 된다는 기준치를 제시하고 있는데, 분석결과 본 연구에서는 CI값의 최대값이 19.719(최소값: 1.000, 평균:8.630)로 나타났으며, VIF값의 최대값은 2.536(최소값: 1.191, 평균: 1.681)로 나타났다(Chatterjee et al., 2006; Hair et al., 1998).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다중공선성의 문제가 우려할만한 수준은 아닌 것으로 판단하였다.

(Table 4)는 회귀분석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Baron and Kenny(1986)는 매개효과를 분석하는 방법으로 3단계 분석방법을 제시하였는데, 먼저 1단계에서는 매개변수에 대한 독립변

Table 2. Results of Validity and Reliability Tests

Variables	Factor Loadings				Communality	Eigenvalue	Variance Ratio(%)	Cronbach's α
	TC	LC	IP	ITP				
TC1	.628	.155	.094	.292	.513	4.578	22.891	.920
TC2	.774	.108	.170	.277	.717			
TC3	.831	.056	.122	.243	.768			
TC4	.873	.077	.191	.127	.821			
TC5	.722	.222	.338	.120	.699			
TC6	.719	.254	.288	.162	.690			
TC7	.676	.284	.087	.169	.574			
LC1	.122	.830	.154	.093	.737	3.833	19.167	.912
LC2	.116	.861	.201	.072	.800			
LC3	.135	.894	.096	.163	.853			
LC4	.235	.703	.211	.182	.627			
LC5	.222	.766	.182	.168	.697			
IP1	.247	.158	.522	.459	.569	2.768	13.842	.856
IP2	.345	.249	.761	.165	.788			
IP3	.216	.223	.833	.093	.800			
IP4	.179	.225	.827	.182	.799			
ITP1	.201	.164	.197	.871	.865	3.481	17.403	.921
ITP2	.232	.206	.201	.770	.730			
ITP3	.275	.128	.070	.835	.795			
ITP4	.237	.108	.096	.862	.820			

Total explained variance=73.303, KMO=.906, Bartlett' s test of sphericity=2946.634, d.f=190, sig=.000

Notes: TC=Technological Capability, LC=Learning Capability, IP=Innovative Performance, ITP=International Performance.

Table 3. Descriptive Statistics and Correlations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① ITP	1							
② IP	.499**	1						
③ TC	.503**	.564**	1					
④ LC	.365**	.523**	.459**	1				
⑤ FA	.044	-.056	-.089	-.183**	1			
⑥ FS	.033	-.033	.007	-.085	.440**	1		
⑦ FSTS	.327**	.232**	.092	.009	.113	.237**	1	
⑧ EE	.225**	.073	.018	-.055	.682**	.506**	.333**	1
Mean	4.843	5.205	4.905	5.495	14.34	3.016	28.75	7.570
S. D.	1.418	1.156	1.265	1.134	11.35	1.163	28.58	7.227

Notes: 1. * p<0.05, ** p<0.01(two-tailed).

2. ITP=International Performance, IP=Innovative Performance, TC=Technological Capability, LC=Learning Capability, FA=Firm Age, FS=Firm Size, FSTS=Foreign Sales as a Percentage of Total Sales, EE=Export Experience.

Table 4. Results of Regression Analysis

		Step 1	Step 2	Step 3
		DV: IC	DV: ITC	DV: ITC
CV	FA	0.017 (0.206)	-0.072 (-0.902)	-0.076 (-1.006)
	FS	-0.104 (-1.530)	-0.190** (-2.885)	-0.192** (-3.044)
	FSTS	0.188** (3.021)	0.259*** (4.334)	0.229*** (3.909)
	EE	0.059 (0.666)	0.284*** (3.253)	0.263** (3.186)
IV	TC	0.418*** (6.564)	0.463*** (7.467)	0.435*** (6.606)
	LC	0.316*** (4.942)	0.171** (2.727)	0.137* (2.179)
MV	IC			0.158* (2.254)
R2		0.449	0.473	0.542
Adjusted R2		0.430	0.455	0.523
F		23.377***	26.279***	28.523***

Notes: 1. * p<0.05, ** p<0.01, *** p<0.001(2-tailed).

2. DV=Dependent Variable, CV=Control Variable, IV=Independent Variable, MV=Mediating Variable, FA= Firm Age, FS= Firm Size, FSTS= Foreign Sales as a Percentage of Total Sales, EE= Export Experience, TC= Technological Capability, LC= Learning Capability, IP= Innovative Performance, ITP= International Performance.

수들의 효과를 검증한다. <Table 4>의 Step 1에서 제시하는 바와 같이 독립변수인 기술역량(p<.001)과 학습역량(p<.001)은 모두 중소기업의 혁신성과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가설1과 가설2는 모두 지지되었다.

다음으로 2단계에서는 종속변수에 대한 독립변수들의 효과를 검증한 결과 Step 2에서 제시하는 바와 같이 기술역량(p<.001)과 학습역량(p<.01)은 모두 국제화성과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3단계에서는 독립변수들과 매개변수를 동시에 모형에 포함시키고 종속변수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였는데, 분석결과 혁신성과(p<.05)는 중소기업의 국제화성과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가설 3도 지지되었다. 혁신성과의 매개효과

를 검증한 결과 기술역량(p<.001)과 학습역량(p<.05)은 모두 여전히 종속변수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혁신성과는 기술역량과 국제화성과 간 관계뿐만 아니라, 학습역량과 국제화성과 간 관계를 모두 부분매개(partial mediation)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다음 <Table 5>는 혁신성의 매개효과를 추가적으로 확인하기 위해 소벨테스트를 실시한 결과를 제시한다(Sobel, 1982). Sobel(1982)은 매개효과를 분석하기 위한 Z-score를 계산하기 위해 다음의 수식(1)을 제안하였다.

$$\text{Sobel's Zscore} = \frac{a \times c}{\sqrt{a^2 s_c^2 + c^2 s_a^2}} \quad (1)$$

여기서

Table 5. Results of Sobel Test

IV	MV	a (IV→MV)	c (MV→DV)	Sa	Sc	Test Statistics	p-value
TC	IP	0.397	0.179	0.061	0.080	2.11594	0.0343 (p<0.05)
LC	IP	0.325	0.179	0.066	0.080	2.03706	0.0416 (p<0.05)

Notes: IV=Independent Variable, MV=Mediating Variable, DV=Dependent Variable,
TC=Technological Capability, LC=Learning Capability, IP=Innovative Performance.

a = 독립변수와 매개변수 간 관계에서의 비표준화 회귀계수,

Sa = a의 표준오차,

c = 매개변수와 종속변수 간 관계에서의 비표준화 회귀계수,

Sc = c의 표준오차.

소벨테스트 결과 기술역량과 국제화성과 간 관계뿐만 아니라 학습역량과 국제화성과 간 관계에서 혁신성과의 검증값이 모두 1.96보다 큰 것으로 나타나 영가설을 기각하고 매개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하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었다 (Baron and Kenny, 1986). 따라서 혁신성과는 앞서 살펴본 회귀분석결과와 일관되게 기술역량과 국제화성과 간 관계뿐만 아니라 학습역량과 국제화성과 간 관계 모두에서 매개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VI. 결론 및 토의

본 연구는 광주·전남지역 중소기업들을 대상으로 기술역량과 학습역량이 국제화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혁신성과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실증분석하고 있다. 206개의 중소기업들을 대상으로 실증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중소기업의 기술역량과 학습역량은 모두 혁신성과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들은 선행연구들이 강조하는 바와 같이, 높은 수준의 기술역량을 보유한 중소기업의 경우 새로운 기술에 대한 효율적인 투자와 신기술을 습득에 용이하하며

(Kang et al., 2017), 기술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어 혁신성과를 높일 수 있음을 시사한다 (Tzokas et al., 2015). 또한, 높은 수준의 학습역량을 보유한 중소기업의 경우 지속적인 제품 및 기술개선을 추구하며, 새로운 아이디어의 적용에 있어 유연한 태도를 지닐 수 있기 때문에 (Fernández-Mesa & Alegre, 2015), 소비자 및 시장수요에 대한 높은 이해도를 바탕으로 (Calantone et al., 2002) 혁신적인 결과물을 이끌어낼 수 있음을 시사한다 (Gomes & Wojahn, 2017). 그렇기 때문에 성공적인 국제화를 위해서 중소기업들은 핵심적인 원천기술을 다수 확보함으로써 기술역량을 강화할 필요가 있으며, 조직학습을 장려함으로써 조직의 학습역량을 강화하려는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을 것이다.

둘째, 중소기업의 혁신성과는 국제화성과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선행연구들의 주장과 일관되게, 혁신적인 중소기업은 환경 및 기술불확실성에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기 때문에 우수한 성과를 달성할 수 있으며 (Jiménez-Jiménez & Sanz-Valle, 2011), 특히, 국내시장보다 더욱 복잡한 해외시장에서의 성과향상에도 기여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Golovko & Valentini, 2011).

마지막으로 혁신성과의 매개효과를 검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기술역량과 학습역량은 모두 혁신성과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며, 국제화성과에도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혁신성과를 매개효과로 고려할 경우에도 여전히 기술역량과 학습역량은 국제화성과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혁신

성과는 기술역량/학습역량과 국제화성과 간의 관계에서 부분매개(partial mediation)의 역할을 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지닌다. 먼저, 본 연구는 중소기업의 기술역량 및 학습역량이 국제화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혁신성과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검증하였다는 점이다. 그동안 많은 선행연구들이 기술역량과 학습역량이 국제화성과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강조해왔지만, 이들 간 관계에서 혁신성과의 역할을 직접적으로 규명하려는 시도는 많지 않았던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본 연구의 분석결과는 중소기업의 기술/학습역량과 국제화성과 간 관계에 혁신성과의 연계성을 규명하였다는 측면에서 의미 있는 학술적 시사점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본 연구의 분석결과는 해외시장으로 진출해 있거나 진출을 고려하는 많은 중소기업들에게 국제화성과를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기술역량 및 학습역량과 더불어 혁신성과의 향상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한다는 측면에서 본 연구는 의미 있는 실무적 시사점을 제시할 수 있다. 또한, 규모의 불리함(liability of smallness)과 외국인 기업으로써의 불리함(liability of foreignness)을 극복하고 성공적으로 해외시장에 진출하기 위해서, 중소기업들은 지속가능한 경쟁우위의 원천이 될 수

있는 기술역량과 학습역량을 구축하기 위한 끊임없는 노력을 경주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본 연구의 결과는 기술역량과 학습역량의 구축을 위한 노력을 바탕으로 뛰어난 혁신성과를 창출한 중소기업들은 보다 수월하게 글로벌 시장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둘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분석결과는 광주·전남지역의 중소기업지원 정책에 의미 있는 실무적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보다 나은 국제화성과를 추구하기 위해서 중소기업들의 기술 및 학습역량을 키울 수 있는 정책적 지원과 더불어 중소기업들의 혁신성과를 장려할 수 있는 지원활동을 수행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하지만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한계점도 동시에 지니고 있다. 첫째, 본 연구의 주된 연구대상이 광주·전남지역의 중소기업들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분석결과를 일반화하는데에는 주의가 필요하다. 향후 연구에서는 보다 다양한 지역의 중소기업들을 대상으로 실증분석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 둘째, 본 연구의 주된 자료수집 방법이 설문조사였기 때문에, 응답자들의 주관적 판단이 설문결과에 반영되어 결과를 왜곡시킬 가능성이 존재한다. 향후 연구에서는 보다 다양한 2차 자료들을 활용하여 실증분석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

References

- Aaker, D. and P. K. Brown (1972), "Evaluating Vehicle Source Effects", *Journal of Advertising Research*, 12(4), 11-16.
- Alegre, J. and R. Chiva (2013), "Linking Entrepreneurial Orientation and Firm Performance: The Role of Organizational Learning Capability and Innovation Performance", *Journal of Small Business Management*, 51(4), 491-507.
- Altınay, L., M. Madanoğlu, G. De Vita, H. Araslı and Y. Ekinci (2016), "The Interface between Organizational Learning Capability, Entrepreneurial Orientation, and SME Growth", *Journal of Small Business Management*, 54(3), 871-891.
- Ar, I. M. and B. Baki (2011), "Antecedents and Performance Impacts of Product versus Process Innovation: Empirical Evidence from SMEs Located in Turkish Science and Technology Parks", *European Journal of Innovation Management*, 14(2), 172-206.

- Baron, R. M. and D. A. Kenny (1986), "The Moderator-mediator Variable Distribution in Social Psychological Research: Conceptual, Strategic, and Statistical Consideration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1(6), 1173-1182.
- Barney, J. B. (1996), "The Resource-based Theory of the Firm. *Organization Science*, 7(5), 469.
- Calantone, R. J., S. T. Cavusgil and Y. Zhao (2002), "Learning Orientation, Firm Innovation Capability, and Firm Performance", *Industrial Marketing Management*, 31(6), 515-524.
- Cassiman, B. and E. Golovko (2011), "Innovation and Internationalization through Exports", *Journal of International Business Studies*, 42(1), 56-75.
- Chatterjee, S., A. S. Hadi and B. Price (2006), *Regression Analysis by Example*, Hoboken, NJ: Wiley-Interscience.
- Cohen, W. M. and D. A. Levinthal (1990), "Absorptive Capacity: A New Perspective on Learning and Innovation", *Administrative Science Quarterly*, 35(1), 128-152.
- De Luca, L. M. and K. Atuahene-Gima (2007), "Market Knowledge Dimensions and Cross-functional Collaboration: Examining the Different Routes to Product Innovation Performance," *Journal of Marketing*, 71(1), 95-112.
- Fernández-Mesa, A. and J. Alegre (2015), "Entrepreneurial Orientation and Export Intensity: Examining the Interplay of Organizational Learning and Innovation", *International Business Review*, 24(1), 148-156.
- Freeman, J., G. R. Carroll and M. T. Hannan (1983), "The Liability of Newness: Age Dependence in Organizational Death Rates",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692-710.
- Golovko, E. and G. Valentini (2011), "Exploring the Complementarity between Innovation and Export for SMEs Growth", *Journal of International Business Studies*, 42(3), 362-380.
- Gomes, G. and R. M. Wojahn (2017), "Organizational Learning Capability, Innovation and Performance: Study in Small and Medium-sized Enterprises (SMES)", *Revista de Administração*, 52(2), 163-175.
- Grant, R. M. (1996), "Prospering in Dynamically-competitive Environments: Organizational Capability as Knowledge Integration", *Organization Science*, 7(4), 375-387.
- Guo, Qian and Kwon, Yung-Chul (2015), "The Influence of Chinese Consumer Ethnocentrism on Brand Attitude : The Moderating Effects of Brand Globalness and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Korea Trade Review*, 40(4), 1-20.
- Hair, J. F., R. E. Anderson, R. L. Tatham and W. C. Black (1998), *Multivariate Data Analysis*, Upper Saddle River, NJ: Prentice Hall.
- Hamel, G. and C. K. Prahalad (1990), "The Core Competence of the Corporation", *Harvard Business Review*, 68(3), 79-91.
- Hennart, J. F., A. Majocchi and E. Forlani (2019), "The Myth of the Stay-at-home Family Firm: How Family-managed SMEs can Overcome their Internationalization Limitations", *Journal of International Business Studies*, 50(5), 758-782.
- Jerez-Gómez, P., J. Céspedes-Lorente and R. Valle-Cabrera (2005), "Organizational Learning Capability: A Proposal of Measurement", *Journal of Business Research*, 58(6), 715-725.
- Jiménez-Jiménez, D. and R. Sanz-Valle (2011), "Innovation, Organizational Learning, and Performance", *Journal of Business Research*, 64(4), 408-417.
- Jung, Bung-Chul and Soon-Gwon Choi (2019), "The Effect of Type of Innovation Capability of SME on Management Performance(Financial/Export)", *International Business Review*, 23(3), 247-271.

- Kale, P., J. H. Dyer and H. Singh (2002), "Alliance Capability, Stock Market Response, and Long-term Alliance Success: The Role of the Alliance Function", *Strategic Management Journal*, 23(8), 747-767.
- Kalmuk, G. and A. Z. Acar (2015), "The Mediating Role of Organizational Learning Capabilit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Innovation and Firm's Performance: A Conceptual Framework", *Procedia - Social and Behavioral Sciences*, 210, 164-169.
- Kang, T., C. Baek and J. D. Lee (2017), "The Persistency and Volatility of the firm R&D Investment: Revisited from the Perspective of Technological Capability", *Research Policy*, 46(9), 1570-1579.
- Knight, G. A. and S. T. Cavusgil (2004), "Innovation, Organizational Capabilities, and the Born-global Firm", *Journal of International Business Studies*, 35(2), 124-141.
- Kim, Hag-Min and Zhang Jin (2012), "The Impact of Innovation Types and Activities on Export Performance : Focused on Korean Firms", *Korea Trade Review*, 37(4), 115-137.
- Lee, Hee-Yong, Jung-Hyun Yoon and Taek-Dong Yeo (2011), "The Impacts of Internationalization Determinants of Exporting SMEs in Daegu & Gyeongbuk on Internationalization Performance", *International Commerce and Information Review*, 13(4), 435-462.
- Lee, Jae-Eun, Ji-Won Kang, Seo-Hyung Choi and Soon-Kyoo Choe (2017), "The Effects of Technological Capability and Domestic Marketing Capability on Export Market Orientation, and Moderating Effect of Market Turbulence : Evidence from SMEs in Gwangju and Jeonnam Province", *Korea Trade Review*, 42(4), 21-47.
- Lim, Jae-Oh and Heon-Deok Yoon (2013), "The Impact of Technological Innovation Capability on Korean SMEs' Internationalization", *Journal of Entrepreneurship and Venture Studies*, 16(3), 1-19.
- Lu, J. W. and P. W. Beamish (2006), "SME Internationalization and Performance: Growth vs. Profitability", *Journal of International Entrepreneurship*, 4(1), 27-48.
- Miller, D. (1983), "The Correlates of Entrepreneurship in Three Types of Firms", *Management Science*, 29(7), 770-791.
- Morgan, N. A., C. S. Katsikeas and D. W. Vorhies (2012), "Export Marketing Strategy Implementation, Export Marketing Capabilities, and Export Venture Performance", *Journal of the Academy of Marketing Science*, 40(2), 271-289.
- Oviatt, B. M. and P. P. McDougall (2005), "Defining International Entrepreneurship and Modeling the Speed of Internationalization", *Entrepreneurship Theory and Practice*, 29(5), 537-553.
- Park, Eun-Kyoung and Tae-Koo Kang (2014), "Effects of Entrepreneurial Orientation and Network Capabilities on International Performance of Korean small and medium-sized Enterprises", *International Business Journal*, 25(3), 97-131.
- Park, Kyung-Su and Jin-Kyo Shin (2017), "Determinants of Internationalization in Korean Innovative SMEs and Their Performance", *Journal of Human Resource Management Research*, 24(2), 103-121.
- Quintás, M. A., X. H. Vázquez, J. M. García and G. Caballero (2009), "International Generation of Technology: An Assessment of its Intensity, Motives and Facilitators", *Technology Analysis and Strategic Management*, 21(6), 743-763.
- Sapienza, H. J., E. Autio, G. George and S. A. Zahra (2006), "A Capabilities Perspective on the Effects of Early Internationalization on Firm Survival and Growth", *Academy of Management Review*, 31(4), 914-933.
- Sinkula, J. M., W. E. Baker and T. Noordeweir (1997), "A Framework for Market-based Organizational

- Learning: Linking Values, Knowledge and Behaviour”, *Journal of the Academy of Marketing Science*, 25(4), 305-318.
- Sobel, M. E. (1982), “Asymptotic Confidence Intervals for Indirect Effects in Structural Equation Models”, *Sociological Methodology*, 13, 290-312.
- Sok, P., A. O’Cass and K. M. Sok (2013), “Achieving Superior SME Performance: Overarching Role of Marketing, Innovation, and Learning Capabilities”, *Australasian Marketing Journal*, 21(3), 161-167.
- Sui, S. and M. Baum,(2014). “Internationalization Strategy, Firm Resources and the Survival of SMEs in the Export Market”, *Journal of International Business Studies*, 45(7), 821-841.
- Sutanto, E. M. (2017), “The Influence of Organizational Learning Capability and Organizational Creativity on Organizational Innovation of Universities in East Java, Indonesia”, *Asia Pacific Management Review*, 22(3), 128-135.
- Tsao, S. M. and G. Z. Chen (2012), “The Impact of Internationalization on Performance and Innovation: The Moderating Effects of Ownership Concentration”, *Asia Pacific Journal of Management*, 29(3), 617-642.
- Tzokas, N., Y. A. Kim, H. Akbar and H. Al-Dajani (2015), “Absorptive Capacity and Performance: The Role of Customer Relationship and Technological Capabilities in High-tech SMEs”, *Industrial Marketing Management*, 47, 134-142.
- Vermeulen, F. and H. Barkema (2002), “Pace, Rhythm, and Scope: Process Dependence in Building a Profitable Multinational Corporation”, *Strategic Management Journal*, 23(7), 637-653.
- Yang, Q., R. Mudambi and K. E. Meyer (2008), “Conventional and Reverse Knowledge Flows in Multinational Corporation”, *Journal of Management*, 34(5), 882-902.
- Yi, J., C. Wang and M. Kafourous (2013), “The Effects of Innovative Capabilities on Exporting: Do Institutional Forces Matter?”, *International Business Review*, 22(2), 392-406.
- Zajonc, R. B. (1968), “Attitudinal Effects of Mere Exposure”,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9(2), 1-27.